

# CHANNEL

People First

존중과 공감으로!  
일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일터

삼성 KPMG

COVER STORY

# 함께 웃고 즐기며 소통하다

인재가 소중한 자산인 삼정KPMG는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6일에는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55주년 기념 'People First Concert'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즐거운 법인 생활을 위한  
'제3회 삼정KPMG 챔피언십'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하나 되는 시간으로  
화합을 도모하며 성장을 이뤄가고자 합니다.

**People First!**

# CONTENTS

Vol  
**255**



##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글로벌 핀테크  
투자 흐름과 전망은?

### 06 Market Reader

요동치는 주류 시장,  
기업의 돌파구는?

### 08 Team Story

AI 회계감사 선구자, Audit Innovator!  
DPP-Audit Innovation팀

### 10 Client+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모라이

### 12 Expert's Advice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은?

###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 행복한 일터

### 16 55주년 특집 I

미리 만나는  
People First Concert

### 18 55주년 특집 II

50동이가 그려본 삼성KPMG의  
미래는  이다!

### 20 삼성동호회자랑

두 발을 내디디며 자연을 느껴요!  
자전거 동호회

### 22 세계가 열린다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 인도네시아!

###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장점과 단점

### 26 **♡** Care

도파민 정상화, 만족의 충분함을 느껴보자!

### 28 Samjong News

한은섭·구승화·정대길 부회장,  
파트너 정년 퇴임식 개최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http://home.kpmg/kr/ko/home.html)

# 글로벌 핀테크 투자 흐름과 전망은?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고금리, 회수 환경 악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핀테크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다.



## 2023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 Top 10

기업명	국가	투자 유형	투자규모 (십억 달러)	주요 사업 부문	사업 형태		
					B2C	B2B/ B2B2C	임베디드
Black Knight	미국	M&A	11.7	부동산 데이터 애널리틱스		✓	
Adenza	미국	M&A	10.5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	
Coupa	미국	Buyout	8.0	금융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	
Finastra	영국	Recapitalization	6.9	금융 서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	✓	✓
Stripe	미국	시리즈 I	6.9	기업용 온라인 결제 솔루션			✓
EVO Payments	미국	M&A	4.0	지급결제 처리 솔루션		✓	✓
Duck Creek Technologies	미국	Buyout	2.6	손해보험용 지능형 솔루션		✓	✓
Celsius Network	미국	Buyout	2.0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	
Moneygram	미국	Buyout	1.8	해외 간편송금 서비스	✓	✓	✓
Chongqing Ant Consumer Finance	중국	PE Growth	1.5	소비자 금융 서비스	✓		

Source: KPMG Global, 삼성KPMG 경제연구원

**불확실성에 핀테크 자금 조달 급감…  
재주목받는 미주 지역**

2023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1,137억 달러(4,547건)로 2022년 1,966억 달러(7,515건) 대비 감소했는데, 고금리 및 고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매수자-매도자 간 밸류에이션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2023년 하반기 582억 달러의 투자가 집행되며 상반기(555억 달러) 대비 핀테크 투자가 소폭 개선되기도 했다.

한편 그간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한 정책과 경제적 요인으로 중국(2015~2018년)과 동남아시아(2020~2022년) 등이 주요 핀테크 투자처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미국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투자자에게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핀테크 투자 자금의 3분의 2(735억 달러)를 흡수하면서 미주 지역의 핀테크 투자 규모가 2022년 954억 달러에서 2023년 783억 달러로 18%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다만 글로벌 핀테크 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신흥국인 인도, 브라질 등을 비롯해 일본, 한국 등이 약진하며 핀테크 산업 내 지역 다변화 및 경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종산업 간 융복합,  
AI에 주목하는 투자자들**

핀테크 투자 섹터를 살펴보면 지급결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상품·서비스 접점 확대로 핀테크와 이종산업 간 융복합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등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반 기술 제공 핀테크를 비롯해 부동산·물류 등 타 산업에 내재된 금융 솔루션 부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핀테크 내 투자 섹터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종산업 융복합 투자(5%→21%), 기반 기술 제공 핀테크 투자(35%→46%) 모두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프롭테크(PropTech) 부문은 2023년 134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으로 유치하며, 핀테크와 이종산업 간의 활발한 융복합을 엿볼 수 있다. 인슈어테크(Insurtech) 투자 또한 2022년 59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하반기 1억 달러 이상의 VC(Venture Capital) 자금을 다수 조달하며 2023년 81억 달러로 급증했다.

전 세계 VC 투자자들의 관심과 더불어 사이버보안과 레그테크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AI 도입을 모색하면서 AI는 핀테크 투자 내 12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유치했다. 생성형(Generative) AI,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한 솔루션 강화와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AI에 대한 관심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투자 반등 가능성…  
임베디드 금융 확장성 등 기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 높은 글로벌 불확실성 탓에 2024년 상반기에도 글로벌 핀테크 투자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와 선거 결과,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반등 가능성도 상존하며, 고금리 상황 속 핀테크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며 지급결제 관련 핀테크 기업의 국내외 통합 및 부실자산 관련 M&A 등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핀테크 전반에서 AI를 비롯한 B2B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베디드 금융이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인프

라·플랫폼 기업 등의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프로젝트 대출, 탄소·공급망 추적 등 ESG 관련 비즈니스를 장착한 핀테크 기업도 주목할 만하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기업과 서비스가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고객 접점 확보와 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 금융과 부동산, 헬스케어, 커머스 등 이종산업이 결합된 핀테크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금융사와 핀테크사는 수익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며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차별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Digital본부 김세호 상무**  
Tel. 02-2112-7879  
E-mail. seihokim@kr.kpmg.com

**경제연구원 최연경 책임연구원**  
Tel. 02-2112-7769  
E-mail. yeonkyungchoi@kr.kpmg.com

# 요동치는 주류 시장, 기업의 돌파구는?

주류 소비 시장의 지각변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류 기업은 시장 및 경쟁 환경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요동치는 주류 시장 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 재점검이 필수적이며, 이에 기업의 돌파구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믹솔로지, 하이볼 등 ... 파편화되는 주류 음용 패턴

음주 시에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라든지, 무알코올과 저알코올을 뜻하는 'NoLo(No and Low Alcohol)'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음용 패턴이 관찰된다. 소주 시장에서는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가 시장 흐름을 주도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16도 저도수 소주가 출시되며 소주 시장에 웰니스가 스며드는 모습이다. 여전히 일반 밀맥주나 IPA(India Pale Ale)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도 많지만, 무알코올 맥주나 맥주 대체재로 여겨지는 저칼로리 발포주로 맥주를 대신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술과 음료 등을 자신의 취향에 맞춰 원하는 비율로 섞어 마시는 믹솔로지(Mixology, Mix와 Technology를 합친 말)가 새로운 주류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해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이 주류 판도를 흔들고 있고, 이 밖에 편의성을 무기로 내세운 RTD(Ready to Drink) 칵테일도 등장하며 주류 다양화가 진전되는 모습이다. 주류 소비 패턴의 파편화는 알코올 주 소비층이 MZ세대로 이동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류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

국내 주류 시장은 출고 금액으로 시장 규모를 가능할 수 있다. 국내 주류 출고 금액은 2015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5개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성장 정체를 겪었다. 반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하며 10조 원에 근접한 규모를 기록했다. 주류는 일반적으로 큰 폭의 수요 변동을 보이지 않지만, 최근 사회 전반 및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 시장의 변동성 확대

는 기업의 사업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주류 밸류체인 전반에서 주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수입·유통업체들은 생산 및 B2C 부문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식품·유통 등 이종업계는 해외 와이너리를 인수하거나 수입·유통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주류 사업 확장을 본격 시도 중이다. 주류 기업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무한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변화의 기로에 선 주류 기업, 지속 성장성 확보 위한 전략은?

국내 주류 시장은 이미 포화 단계로,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미·유럽·아시아 등으로 판로를 넓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키워드로 본 주류 소비 취향 변화

<h3>술자리는 싫지만 혼술·홈술은 즐기는 소비자</h3>	<h3>고가 주류 탐닉하는 소비자 증가</h3>	<h3>나만의 술 찾는 소비자</h3>	<h3>디토(Ditto) 소비 확산</h3>
<p><b>코로나19를 기점으로 혼술·홈술 확산됨과 동시에 음주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용량 및 저도주를 즐기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s)가 증가</li> <li>· 회식 중심의 음주 문화,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즐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li> <li>· 음주 시에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문화가 확산</li> </ul>	<p><b>혼술 장기화 및 고급화 영향으로 엔트리급 주류에서 고가 주류로 소비 스펙트럼을 넓히는 동시에 프리미엄 주류(와인·위스키 등)로 디깅(Digging) 성향을 보이는 소비자가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들 소비자는 제품 맛·품질 및 브랜드 스토리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아낌없이 소비</li> <li>· 다른 곡물을 넣지 않고 오직 몰트만 원료로 하여 단일 증류소에서 생산한 싱글몰트 위스키의 인기 현상이 이어지며 고가 싱글몰트 수요 증대</li> </ul>	<p><b>새로운 맛, 좋은 품질 주류 찾아 나선 소비자에 주류 수요 분산·파편화 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술과 '홈텐딩(홈+바텐딩)' 문화가 확산하며 집에서 스스로 술을 섞어 마시는 믹솔로지(Mixology) 트렌드가 새로운 주류 문화로 정착</li> <li>· 원하는 비율로 섞어 마시는 소맥 외 다양한 섞음주가 등장</li> </ul> <p><i>하이볼(위스키+탄산수), 막사(막걸리+사이다), 연맥(연태고량주+맥주) 등이 각광</i></p>	<p><b>주류 구매로부터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튜브·SNS로부터 주류 인플루언서들의 술 추천 게시물 및 영상을 보고 따라 구매하는 '디토(Ditto) 소비'가 급격히 확산 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토 소비는 남을 따라 구매하는 구매 패턴을 의미. 이는 복잡한 소비 환경에서 정보 검색에 드는 시간과 실패 확률을 줄여줄 소비 전략으로 부상</li> <li>· 주류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값비싸서 디토 소비에 적합한 특성</li> </ul>
<p><b>헬시 플레저 저도주 제로슈거 무알코올 혼술·홈술 발포주 소용량</b></p>	<p><b>프리미엄 위스키 와인 싱글몰트 디깅 소비 재패니즈 위스키</b></p>	<p><b>RTD 믹솔로지 취향 하이볼 토닉워터 연맥·막사 섞음주</b></p>	<p><b>디토 소비 술 먹방 SNS·유튜브 주류 인플루언서</b></p>

글로벌 대표 주류업체로 손꼽히는 페르노리카(Pernod Ricard), 하이네켄(Heineken) 등도 지역별 매출 다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 구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 및 음주 가 능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 중국, 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현지 브랜드 인수 를 통해 발판을 넓히는 양상이다.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입지를 확보하려 는 국내 주류 제조업체라면, 단순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 외에도 대규모 생산설비를 보 유한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현지에 생산시 설을 직접 구축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방 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투자 방식을 결 정할 때 기업의 해외 진출 목적이나 상황에 근 거하여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주류 제조업체는 전통 양조법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등 새로운 공법 개발에 힘 써야 한다. 혁신 양조기술·증류기술은 기업

이 주류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독보적 양조·증류기술로 맛·풍미를 향상시킨 고품질 제품 개발은 물론, 생산성 제고를 실 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류 분야에서 지속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높은 브랜드 가치와 독보적 양조기술을 보유 한 중소규모 크래프트 증류소·양조장 등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검토하거나 투자·M&A 기 회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지속될 주류 취향의 초 세분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힘쓰며 주종 다변화 및 제품 라인 업을 넓혀야 한다. 기업들은 위스키·코냑·테 킬라 등 고성장 주류 카테고리의 프리미엄 브 랜드 확보에 힘쓰되, 희소가치 높은 한정판 제품이나 독특한 향·플레이버(Flavor)가 가미 된 제품 편입을 고려하며 소비자 저변을 효 과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아울러 믹솔로지 트렌드에 따라 칵테일 위 주의 RTS(Ready to Serve)·RTD 시장의 고성 장세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RTD 제품 등의 신 제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속하고 음용 경험 다양화를 주도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 가 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유통·소비재산업본부**

**이용호 부대표**

Tel. 02-2112-0677

E-mail. yongholee@kr.kpmg.com

**경제연구원 김수경 수석연구원**

Tel. 02-2112-3973

E-mail. sookyoungkim@kr.kpmg.com

# AI 회계감사 선구자, Audit Innovator! DPP-Audit Innovation팀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회계 감사에도 신기술과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삼정KPMG는 DPP(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내에 Audit Innovation팀을 운영하며 디지털 감사 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AI 회계감사 선구자인 Audit Innovation팀을 만나본다.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보는 Audit Innovation팀

## DPP-Audit Innovation 주요 서비스

### KPMG Clara A.I. Transaction Scoring:

업계 최초 AI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각종 위험지표, 통계적 분석 기법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종합 고려해 거래의 오류 가능성을 전수 테스트함.

### KPMG Clara A.I. Chat과 Microsoft Copilot:

AI-chat은 Open AI의 GPT 4.0 모델을 기반으로 회계 및 감사 Knowledge를 학습한 회계감사용 생성형 AI. 또한 MS-Copilot을 최근 도입하여 문서 작성, Teams 회의록 작성, 엑셀 데이터 분석 등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임.

### AuditSay(오딧세이):

회계 및 감사 목적의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기준서 등 공개된 데이터뿐 아니라 KPMG 회계 및 감사 전문팀에서 저작한 지식 자산이 총 망라되어 있음.

### DataSnipper:

감사업무 자동화 도구. 감사인의 단순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줄이고, 복잡하고 위험이 높은 감사 업무에 집중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Smart Footing Tool:

기존에 감사인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Footing' 업무(재무제표 및 주석 함께검증, 재무제표와 주석간 상호대사)를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Smart Footing Tool 자체 개발.

### Digital Asset Audit Suite:

DAAS를 활용하여 직접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on-chain data)를 독립적으로 조회하여 가상자산의 잔액과 거래내역에 대한 검증 수행.

### KPMG Clara Collaboration:

효율적인 문서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고객사 전용 웹사이트인 KPMG Clara Collaboration을 사용.



## 회계감사 품질 제고 위한 첨단 기술은 필수

지난해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혁신 AI 기술들이 넘쳐나는 요즘, 회계감사 환경에도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회사의 거래는 다양한 회사 내 외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데이터는 PC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다.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당좌거래 정지 여부, 카드 사용 내역 등 활용 가능한 외부 데이터도 많아지면서 예전에 하기 어려웠던 분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분야도 생겨났다. 블록체인이 그러하다. 최근 비트코인의 ETF 상장을 계기로 다시 한번 뜨거워진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개방성을 토대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 역량 없이는 온체인데이터(On-chain Data)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 불리는 정보 제공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삼정KPMG Audit Innovation팀에서는 2022년 비트코인과 위믹스를 시작으로, 2023년 클레이튼까지 국내외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직접 접속해 독립적인 감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감사 품질로 직결되며, 회사에게도 자료 제출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경험과 역량 갖춘 팀원들, 회계감사 혁신 이끌어

삼정KPMG의 Audit Innovation팀은 AI, 블록체인 등 이머징 테크놀로지(Emerging Technology)를 활용해 기존의 회계감사를 혁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KPMG 글로벌뿐만 아니라, 타 멤버 펌의 선진 감사 툴(Audit Tool)을 도입하기도 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자체 개발한다.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회계감사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가치는 더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 특히, 감사인들이 실무에서 맞닥뜨리는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협업하는 팀이다. 블록체인의 소스코드를 읽고 프로그램을 짜는 개발자, 대용량 데이터 가공과 분석에 능한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애널리스트, 자동화 전문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한 회계사 등 모두 전문 영역은 다르지만 회계감사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 DPP-Audit Innovation팀 한마디



**박원일 상무 (팀 리더)**  
wonilpark@kr.kpmg.com

**다양성으로 최고를 지향**  
Audit Innovation팀은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정범영 Manager**  
beomyoungjeong@kr.kpmg.com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회계선구자**  
AI,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있는 지금, 회계감사를 이런 최신 기술에 접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류정화 Manager**  
jrout1@kr.kpmg.com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감사업무 자동화**  
감사 업무 자동화 툴을 통해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에서 해방되고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DataSnipper와 SFT를 통해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은 이제 안녕~!



**최경수 S.Manager**  
kyungsoochoi@kr.kpmg.com

**D&A로 Value를 제공**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감사인은 다양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감사 Insight를 얻고 고객에게 Valu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D&A Tool을 개발하겠습니다.

## ASPAC Chairman's Award 2023 - Operational Excellence 부문 수상 감사 품질 최우선으로 더욱 노력할 것!

삼정KPMG는 감사 품질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dit Innovation팀도 그 중요한 한 축으로서 리더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실력은 이미 KPMG ASPAC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 Audit Innovation팀은 Smart Footing Tool을 개발하며 회계감사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며 'ASPAC Chairman's Award 2023'에서 Operational Excellence 부문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Audit Innovation팀은 감사인들이 위험에 집중하도록 자동화 솔루션 및 통찰력 있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감사 품질의 향상과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모라이

모라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현대자동차, 현대오트모터,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네이버랩스, 포티투닷 등 150여 이상의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에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공급하며, 디지털 트윈 및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분야를 이끌고 있다. 특히, 기술력을 인정받아 Ansys, 아마존웹서비스(AWS), Nvidia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MORAI



1



2

- 1 미국 미시건대 M-City와 MOU 체결
- 2 서울시와 공동주최한 서울 버추얼 자율주행 챌린지 단체 사진
- 3 서울 버추얼 자율주행 챌린지 전경
- 4 모라이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화면



3

### 국내 유일 풀스택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발

모라이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자율주행차 연구원 출신인 정지원, 홍준 공동 대표에 의해 2018년 3월에 창립됐다. 두 대표는 대학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며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두 대표는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다. 이처럼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어 엔진을 포함한 풀스택(Full-stack)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모라이의 미션은 '선진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연구원들과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현재 업계가 기대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 34곳으로 확대,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됐다. 모라이는 자율주행 시범지구들을 가상화해서, 자율주행 시대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을 가상 환경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되어, 우리 생활에 적용되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다양한 교통관제, 시나리오 생성 및 분석 기능이 중요하다. 모라이는 교통관제부터 자율주행차 데이터 수집, 시나리오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 현실적 가상 환경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테스트 및 검증 지원

모라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자율주행차의 인지, 판단, 제어 전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알고리즘이 개발 의도대로 작동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이 제품은 현실과 흡사한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며, 센서, 차량 모델, 시나리오가 포함된 가상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모라이는 시뮬레이션이 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상과 실제의 갭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지도데이터, 교통데이터, 센서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과 실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고 실현했다.

모라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해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가 수집한 현실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교통 흐름을 모델링하고,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한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실제 도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율주행 경진대회 및 후원 등 인재 양성에 앞장서

모라이는 자율주행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자율주행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이나 무인이동체, 로봇틱스 분야의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사업단과 협력하고 있다. 국내외 대학들과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모라이 시뮬레이터 활용해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학생들이 AI 기술과 자율주행 역량을 키우도록 시뮬레이터를 공급하거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운영 및 후원하고 있다. 2023년에 7개 이상의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주관, 후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의 후원으로 '서울 버추얼 자율주행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국내 대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은 모라이의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서울 도심에서 학생들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경진대회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라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항공, 무인 로봇, 무인 선박, 무인 차량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2024년 개정 세법 중요한 것만 꼭!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은?

해가 바뀌면 정부의 기초 혹은 정책 등에 변화가 생긴다. 세법 역시 마찬가지! 올해 개정세법 중에 우리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은 무엇인지 삼정KPMG 세무 전문가에게 알아본다.

## Q 올해 시행될 개정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작년 말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4년 개정세법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및 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업의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업 과세 측면에서는 1)기회 발전 특구 감면 규정의 신설, 2)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3)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5)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6)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정비 및 시행 시기 조정 등이 주요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 Q 이 중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은요?

우선,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은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고, 특구 내 창업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최근 K-콘텐츠산업의 부흥에 맞추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국내 건설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도록 하였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상향하고 분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주요국 시행 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도 일반법인과 같이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점이나 해외신탁 자료제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Q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번에 신설되거나 확대된 세제지원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감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은 1년 유예되었지만 소득산입규칙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되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다국적 기업은 미리 세무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TAX 이재호 부대표

Tel. 02-2112-0520  
E-mail. jlee315@kr.kpmg.com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우리가 알면 좋을 다양한 신조어를 배워보는 알쓸사전! 이번 호에서는 AI 기업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와 사람과 유사한 범위의 지능 갖춘 인공지능을 표현하는 용어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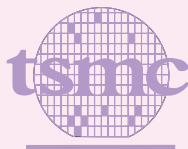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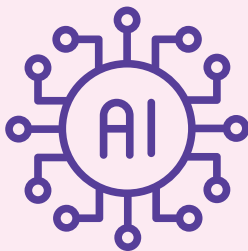


## 미래를 이끄는 5대 인공지능 기업

### AI5

최근 AI5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인공지능(AI) 5는 AI와 관련한 5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AI5에는 AI 관련 5대 기업인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AMD·TSMC·브로드컴이 포함돼 있어요.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과 매그니피센트7(M7) 기업인 구글·애플·메타·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MS 등 7종목에 이어 'AI5' 뉴욕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주도주로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 경제 포털 야후파이낸스는 지난 2월 4일(현지 시각) "FAANG과 M7은 가고 AI5의 시대가 왔다"고 전한 바 있어요.

AI5는 미국 라이트 스트리트 캐피털의 기업분석가인 글렌 캐처가 만든 표현인데요, 이 중 MS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3개 사는 이전 'FAANG'과 'M7'에는 없던 기업입니다. 유망 AI 관련 미국 회사들 사이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도 포함돼 있어요. TSMC는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엔비디아와 AMD 등이 디자인한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의 AI 용 반도체를 포함해 세계 반도체의 과반을 만들어내는 생산력을 인정받아 AI5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 사람과 유사한 범위의 지능 갖춘

### 범용 인공지능 (AGI)

최근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인공지능(AI)이 5년 내로 인간이 치르는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어, 그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인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경우 5년 안에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인간 수준의 인식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AGI)'가 곧 등장할 것이라 내다봤죠. 범용 인공지능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사람과 유사한 범위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은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전담 조직인 'AGI 컴퓨팅랩'을 신설하고,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 개발자 출신 우동혁 박사를 리더로 임명했어요. 메타 역시 자체적으로 범용 인공지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3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8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생성형 AI 산업의 중심에 있는 오픈AI 역시 AGI를 개발 중이며, 최근 영상 생성 AI인 '소라(Sora)'를 출시해 AGI 구현 기간을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 55주년 특집 I

미리 만나는  
People First Concert

16

## 55주년 특집 II

50동이가 그려본 삼성KPMG의  
미래는  이다!

18

## 삼성동호회자랑

두 발을 내디디며 자연을 느껴요!  
자전거 동호회

20

## 세계가 열린다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 인도네시아!

22

## 이동규의 두줄칼럼

장점과 단점

24

## 心 Care

도파민 정상화, 만족의 충분함을 느껴보자!

26

## Samjong News

한은섭·구승희·정대길 부회장,  
파트너 정년 퇴임식 개최 외

28



에스파



다이나믹 듀오

55th ANNIVERSARY  
미리 만나는  
People First  
Concert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축제, 'People First Concert'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5월에 열릴 행사를 기다리는 삼정인들을 위해 미리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다비치



싸이



## # 콘서트 최대 하이라이트 K-스타 총출동!

### 싸이, 에스파, 다이ना믹 듀오, 다비치 공연 펼쳐

오는 5월에 열릴 People First Concert를 화려하게 장식할 콘서트 뮤지션이 확정됐다. 특별히 삼정인들이 보고 싶은 뮤지션들을 직접 뽑아, 의미가 깊다.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K-Pop 아이돌, 락/발라드, 힙합/R&B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 후보 리스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뮤지션을 투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투표 과정을 걸쳐 K-Pop 아이돌에서는 87% 득표율로 에스파가, 락/발라드에서는 여성 듀오 다비치가 36%, 힙합/R&B에서는 다이나믹 듀오가 44%의 득표율로 선정됐다. 다이나믹 듀오는 50주년 콘서트에 이어, 삼정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힙합 뮤지션으로 뽑혔다. 이어 지난 50주년 콘서트에 열정적인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은 싸이가 다시 한번 KPMG Korea 55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그 어느 페스티벌보다 더 화려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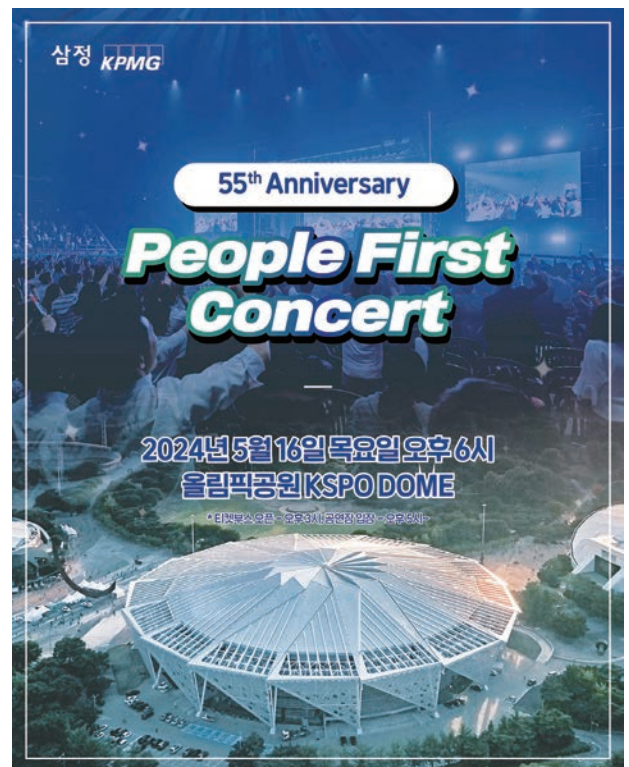
## # 최고의 무대를 기대해! 끼 마음껏 발산할 삼정인 누구?

### KPMG'S GOT TALENT

이번 'People First Concert'에서는 삼정인들의 다재다능한 끼를 뽐낼 수 있는 KPMG'S GOT TALENT 무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삼정인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뽐내는 자리로, 4월 14일까지 참가 신청 및 영상을 응모하고 있다. 아울러 삼정인들의 주변의 숨은 능력자를 추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밴드, 노래, 연주 등 다양한 삼정인들이 참여를 준비 중이다. 4월 23일에는 영상 예선을 통해 삼정인들의 투표로 행사 당일 무대에 오를 Top 4가 결정된다. 무대에 오른 Top 4는 현장 문자 투표를 통해 1~4위의 순위가 결정된다. 1위는 1,0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 3위 300만 원, 4위 200만 원이라는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과연 Top 4로 선정될 삼정인은 누구일까?

## # 임직원 합창단, 모두 하나되는 감동의 하모니!

50주년 행사에 이어, 55주년 콘서트에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합창단 무대를 펼친다. 지난 KPMG Korea 5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는 50명의 임직원 합창단원이 전문 지휘자의 지도 아래 약 두 달 간의 연습 끝에 감동의 하모니를 완성한 바 있다. 올해도 55주년을 기념하며 임직원 합창단 공연을 선보인다.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인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4~5월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에 매진하여 멋진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벌써부터 어떤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려줄지 기대가 된다.



**1부** 18:00 ~ 19:40

기념식  
임직원 합창단  
성악 공연  
KPMG'S GOT TALENT

**2부** 19:40 ~ 22:00

다비치  
다이나믹 듀오  
에스파  
싸이

# 50주년 입사자 인터뷰 50등이가 그려본 '삼정KPMG의 미래는 이다!'

입사 초



## "삼정KPMG의 미래는 **사람** 이다!"

법인의 미래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앞으로도 소통과 존중이 있는 People First를 통해 법인과 구성원들의 목표가 하나 되어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 김재원 S.Senior (IT Audit)

2019년 입사 당시 '50등이'라고 불리며 막내 역할을 했는데, 어느새 5년이 훌쩍 흘렀네요. 법인 생활을 하며 여러 선후배, 동기 등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 시즌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이끌어 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법인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법인에 입사하길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NCP(New Challenge Program)를 통해 본부 이동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에 응원해 준 IM1본부 분들과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신 현재 본부원분들에게도 감사を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55주년은 경영진분들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모두가 함께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60등이, 70등이들에게도 더욱 자랑스러운 법인으로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바 최선을 다하여 우리 법인의 미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 "삼정KPMG의 미래는 **꺼지지 않는 빛** 이다!"

해가 빛나는 낮에도, 달빛이 비추는 밤에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갈 환한 빛은 삼정KPMG의 미래를 환히 비추는 빛입니다!

### 하운찬 S.Senior (Tax4)

2019년 7월 1일 신입 회계사로 입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으로 동료 선생님들과 지방 출장을 다녀오며 보낸 시간들, 동기들과 역사역 맛집 탐방하던 기억들 그리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업무를 배워간 순간들 등 법인에서 보낸 5년은 즐겁고 배울 점이 많았던 법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수많은 역사를 써온 KPMG Korea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50등을 넘어 환갑등이, 고희등이, 100등이가 나타날 그 순간까지 탄탄한 조직, 건강한 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심 잃지 않고 더욱 성장해 나가는 세무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입사 초



현재



KPMG Korea 55주년을 맞이한 올해, 지난 50주년에 입사한 50동이 삼정인을 만나본다. 입사 후 55주년을 함께 맞이한 소감과 앞으로의 삼정KPMG 미래를 그려본다.



입사 초



### "삼정KPMG의 미래는 **소통** 이다!"

최근 법인에서는 K-People, 360도 평가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이 삼정KPMG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 김성현 S.Analyst (Deal Advisory1)

회계사 시험이 끝나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인에 입사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누구에게는 짧았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축하할 만한 5주년이 되었는데 마침 회사도 55주년이라 하니 더욱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현재



저는 지난해 GEP(Global Elite Program) 대상에 선정되어 영국 연수를 다녀온 적 있는데, 그 당시 '우리 법인에 입사하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법인 연수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만큼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휴가를 더 사용해 쉬다 오라는 팀 상무님의 배려에 2주 넘는 기간 정말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애사심이 더욱 생겼습니다. 5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60주년 65주년 등 계속 우리 법인이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매니저 진급 대상이 되었는데, 기대도 되지만 부담도 크네요. 많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서 삼정KPMG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매니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삼정KPMG의 미래는 **한마음** 이다!"

수많은 난제를 헤쳐갈 수 있는 건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 한 발자국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로 뭉칠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각자 서로 다른 입장과 빛깔을 지녀도 같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법인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 정예라 S.Consultant (SG)

입사하고 한 2주 만에 50주년 콘서트를 참석한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입사한 순서로 치면 뒤에서 1등이었는데, 55주년 콘서트 때가 되니 이제는 앞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게 되었네요. 하하. 저는 삼정KPMG에서 지내며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좋은 동료들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프로젝트를 하며 힘들음을 버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등을 맞대고 의지할 동료들이라 생각해요! 회사 덕분에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55주년이라는 게, 제가 몸담았던 5년을 제외하고도 그러한 기간이 10번은 더 흘러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새삼 그 시간의 무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법인이 잘해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55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초



현재





# 두 발을 내디디며 자연을 느껴요! 자전거 동호회

두 발로 페달을 힘껏 내디디며,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삼성인들이 모인 자전거 동호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잠시 멈췄지만, 다시금 라이딩의 계절 봄을 맞이해 방방곡곡을 라이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한 요즘, 자전거 라이딩에 관심 있다면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들려주는 라이딩 스토리에 집중해 보자.



### # 라이딩 하기 딱 좋은 계절, 함께 해요!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봄바람을 맞으며 라이딩을 즐기는 삼정인들이 있다! 2015년에 개설되어, 9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이다. MC3본부의 박원 상무가 동호회를 이끌고 있고, 현재 약 2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활력을 찾고 있다는 동호회 총무 박성운 부장은 “코로나 이후 동호회 활동을 자주 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동호회원들과 다시금 씩씩 달려보려 해요.”라며, 봄을 맞아해 신규 회원을 적극 모집 중이라한다.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생각하는 라이딩의 매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본다.

### # 여행하듯 즐기! 힐링 그 자체

**유재선 과장(총무팀):** 저는 자전거에 대해 배우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마땅치 않았어요. 혼자라면 어렵겠지만, 동호회에서 는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최형식 차장(ITS):** 이곳 저곳 여행하듯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어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차로 갈 수 없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풍경을 만끽하며 제대로 힐링하고 있어요. 매월 어디로 갈지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하하.

**노소연 차장(Tax5):**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죠!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힐링의 시간이고, 어디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라이딩으로 함께 맛집도 많이 찾아 다닐 수 있었어요. 특히 주말에 누워있지 않고, 움직이며 활력을 얻으며, 일상의 즐거움도 배가 되었어요.

### # 춘천에서 서울까지, 1박 2일 섬진강 종주도 함께 해!

**최형식 차장(ITS):** 동호회 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함께 다양한 곳을 라이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에 새벽부터 준비해서 오전 9시에 춘천역에 집결하여, 춘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며 돌아온 기억이 나요. 경치가 끝내줬어요!

**박성운 부장(총무팀):** 저는 1박 2일 섬진강 종주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섬진강과 곡성기차마을, 화개장터, 광양까지 종주하며 눈이 너무 즐거웠고, 가는 곳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어 좋았어요. 아침, 라이딩 중간에 더위도 식힐 겸 섬진강에서 화개장터까지 래프팅을 했는데 정말 시원하고, 즐거웠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종주의 목적지인 광양에 도착했을 때 해냈다는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 # 초보자들도 환영! 체력 늘리는 데에 자전거가 최고!

**박성운 부장(총무팀):** 4월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정기 라이딩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일정이 맞는 분들은 번개도로 자주자주 라이딩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보자라 해서 걱정 마세요. 초보 회원분들에 맞춰 코스를 설계하고 스피드를 조절하고 있어요. 편하게 오셔서 즐기세요~!

**김진오 이사(MC1):** 맞아요! 우리 동호회는 절대 빨리 달리지 않아요. 항상 안전을 중시하며 주행하고 있어요. 뽕뽕 속도를 내어 달리는 것보다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달리는 것을 우선시하기에 초보자 분들도 쉽게 라이딩할 수 있어요!

**최형식 차장(ITS):** 혹시라도, 장거리 라이딩으로 겁낼 필요 없어요. 본인 체력에 맞춰 힘들면 언제든 귀가도 가능하다고요!

**박원 상무(MC3):** 무엇보다 라이딩할 수 있는 체력이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 타다 보면 기초 체력이 올라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하반기에는 1박 2일 종주도 계획 중인데요, 회원님들의 실력이 탄탄해지면 해외 원정 라이딩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며 라이딩 하셨음 좋겠습니다.



### 자전거 동호회 문의

총무팀 박성운 부장  
E-mail. sungwoonpark@kr.kpmg.com  
Tel. 02-2112-0980



#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 인도네시아!

지난 3월 13일,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구축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7년 만에 전략대화를 재개한 것으로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기대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인도네시아 Korea Desk의 김주명 S.Manager를 통해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글 인도네시아 Korea Desk 김주명 S.Manager E-mail joomyung.kim@kpmg.co.id Tel +62215742333

Indonesia



## # GDP 지속 성장, 경제 성장률은 5%대 유지

인도네시아의 현재 비즈니스 환경은 글로벌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상황 등 불안정한 국제 상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률은 연간 약 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생활비 위기, 중국의 경제 둔화 등 다양한 외부 압력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는 2024년 예산에 대한 계획인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수도 건설, 대규모 군비, 그리고 72억 달러 규모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대통령 선거는 2024년 2월 14일에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인도네시아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 명의 주요 후보가 대통령직을 두고 경쟁하는 세 갈래 경주로,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전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전 중앙 자바 주지사 간자르 프라노워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진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지역 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선거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전기차 시장 활기! 이외 다양한 산업도 성장성 높아

인도네시아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과 함께 눈에 띄는 몇 가지 분야가 있다. 전기차 시장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 하려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기를 띠고 있다. 이미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생산을 2024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600,000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전기차-배터리 공장의 완공과 함께 더욱 실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LG Energy Solutions는 인도네시아 내 여러 시설에 98억 달러를 투자하는 컨소시엄을 이끌며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아직 이 시장에 크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전기차 시장 외에도 전자상거래, 여행 및 관광, 인프라건설, 식음료 산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성장 동력 중 일부이다.

## #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다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는 국가의 복잡한 규제 환경과 법률 시스템, 문화적 차이와 비즈니스 관행, 인프라와 물류의 한계, 로컬 파트너십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에 대한 사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와 진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산업 발전 계획, 특히 전기차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노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서의 비즈니스 에티켓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처음 만남이나 미팅 시에는 직접적인 비즈니스 얘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선호한다. 시간 약속에서도 유연성을 보이는 편이라, 약간의 지연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 또한 조화를 중시하는 인도네시아의 문화답게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 및 대처하고 있어 한국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문화적 차이는 없는 편이다.



포스코 담당자 분들과



### 인도네시아 Korea Desk

KPMG 인도네시아의 Korea Desk는 약 10년이 넘게 한국 기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Audit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한국 기업의 회계감사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Tax, Advisory, Legal function의 전문가들을 고객사들의 니즈(Needs)와 발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또는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단점 개선의 유혹을 포기하라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

###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이것은 평생 화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처럼 허망한 개념도 없다. 원래 장·단의 구분 자체가 매우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거니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없다. 살다 보면 장점은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단점은 어느덧 장점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영학에선 죽어라 약점을 보완해왔는데도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것을 ‘경쟁의 역설(Competition Paradox)’이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평생 속고 사는 것이 “당신은 그 단점만 고치면 최고다”라는 말이다. 특히 ‘전 과목 평균’이란 해괴한 제도를 유지해온 이 나라에선 어느 한 분야에 매우 뛰어난 천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구조다.

#### # 단점 개선의 유혹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살면서 주위에서 끝없이 단점을 지적받고 고칠 것을 권유받고 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걸 죽도 밥도 안되는 지름길이다. 단점

개선이란 이름의 화려한(?) 유혹에 이끌려 이것저것 보강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얼치기 중간급으로 전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하루 빨리 “죽이나 밥이나”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그것이 바로 ‘포기와 집중’의 힘이다. 선택이란 곧 고난도의 포기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막힌 우화도 있다. 오리는 하늘을 날고 싶었다. 다른 새들이 날지도 못하는 게 새냐고 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행 학교에 등록했다. 거기서 ‘나무 오르기’, ‘달리기’, ‘높이뛰기’ 등 여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자 수영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 # 사례 연구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유단취장(有短取長), 이 말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성호(星湖) 이익 선생이 강조한 것으로 단점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최대의 단점이라 꼽는다. 그러나 해외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이런 한국의 빠르고 신속한 스피드 경영이 최대 강점이라고 이구동성이다. 어느 싱가포르 유력기업의 법인은 “한국인들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다음 날 시제품 도안이 올 정도로 열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K-방산의 인기도 한국식 빨리빨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도의 첨단 무기를 다른 경쟁국에 비해 2~3년 내에 공급 완료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거기에 A/S와 기술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점도 추가되고 있다는 거다.

대학원 수강신청도 좋은 사례다. 요즘 대학원에는 소위 가방끈이 짧아 아쉬움을 겪어온 늦깎이 학생들도 많다. 그들 중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그들이 하는 수강신청은 대부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분야 과목을 신청한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다. 그런데 뷔페식이 별로이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수강하고 나면 얼마 안 가 졸업이 다가온다.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는 식당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사실은 졸업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횡집에서든 고수는 모듬회는 시키지 않는 법이다. 결국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고 잘해온 분야를 파고들어 다른 사람이



엄두를 못 낼 수준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값비싼 기회를 무난하게 날리고 있는 것이다.

## # 잘하는 것, 더 잘하기

한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더불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심리학자, 랜달 햄록(R. Hamrock)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닌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Do what you love)”고 말한다. 특히 스티브 잡스는 이 점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다. 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는 본인의 재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능력이라고 답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 잘하는 일이 된다. 요컨대, 내 장점을 극대화해서 남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도 마찬가지다. 결국 내가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것이야말로 전략론의 핵심이며 내 인생의 유레카적 발견이다.

## ▶▶ 저자 소개

###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로 최근 출시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지문(Thinkprint)』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 작가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 꼭 짧고 강렬하고 자극적일 때 도파민이 나올까? 도파민 정상화, 만족의 충분함을 느껴보자!

분명 숏폼 영상 10분만 보고 자려 했는데,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가 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겪는 경험일 테다. 획획 넘어가는 재미있고 짧은 영상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거북목을 쭉 빼고 빠져 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까? 걱정이 커지는 만큼 자극적인 영상들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이번 호에서는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영상, 음식, 활동을 할 때 쾌락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의 여러 얼굴에 대해 알아본다.

“도파민은 우리의  
동력원이자 활력소.  
도파민을 제대로 분출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예상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도파민 천국이다. 짧고 흥미진진한 동영상 콘텐츠인 숏폼 영상들,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드라마 소재들, 눈에 띄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소비를 돋우는 팝업 스토어들 등 요즘 대세는 순간적으로 강한 쾌감과 흥분을 일으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중독성이 있어 끊기가 어려운 콘텐츠다. 이런 특성을 주는 콘텐츠들을 접하면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쫓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새로운 합성어인 도파밍(Dopamine+Farming: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끔 하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수집한다는 뜻, 도파민 디톡스(도파민을 과하게 추구하는 중독적인 행동을 줄인다는 뜻의 용어) 등의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만 봐도 현 문화의 트렌드가 도파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자기 몸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스마트폰이 있다.

### #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극 추구 성향의 사람들

도파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에 대한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다뤄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극 추구 성향이란 이름으로 개념화한다. 자극 추구 성향은 타고난 기질적인 요인이다.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새롭고 재미있는 활동 즉, 잠재적인 보상 단서를 접하면 매력을 느끼면서 행동과 감정이 활성화되기 쉽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활동들을 선호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그만큼 감정적으로도 쉽게 흥분하고 열광하는 편이다.

그럼 자극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어떨까? 이들은 자극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자극이 그리 편하지 않아서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편이며, 단조로운 자극을 지루해하지 않아 절제된 생활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낮은 각자의 특성과 매력이 분명한데, 아무래도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보상에 민감하므로 도파민 추구 활동에 더 반응을 격하게 할 수 있다.

### # 도파민 디톡스? 그렇다고 도파민을 아예 없애면 안 된다

호흡이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과하게 노출되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변화도 심해지는 것 같아 요즘 ‘도파민 디톡스’를 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의미 있는 시도다. 그렇지만 도파민을 아예 모조리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도파민은 우리의 동력원이자 활력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도파민을 분비하는 활동을 찾아서 하되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쾌락 추구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추구하지는 말자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 # 도파민 정상화를 위해서

숏폼 영상을 보지 않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막장 드라마를 보지 않고도 어떻게 도파민을 내뿜을 수 있을까? 도파민은 계획한 일을 실행했을 때,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일을 끝냈을 때에 분비된다. 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 힘든 일을 다 끝내도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뇌에게 도파민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이 제대로 분출되기 위해서는 행복을 예상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일을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난 뿌듯할 테다”는 예고를 던져줘야 뇌에서 도파민이 칼칼 쏟아져 나온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차단하고 하루 30분의 시간을 꼭 보내기를 권한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운동할 때는 운동만 하자. 그래야 운동이라는 단독 활동에도 도파민 분비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음악회,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사우나, 수영 등 1시간 이상 스마트 기기를 볼 수 없는 여가 활동은 더없이 좋다. 흥미와 더불어 아주 약간의 지루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반강제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TV를 바보상자라 부르며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것을 걱정하던 때도 있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콘텐츠의 특성에 맞춰 진화하는 도파민을 누리보자.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 SAMJONG NEWS

## 한은섭·구승화·정대길 부회장, 파트너 정년 퇴임식 개최 삼성KPMG 고문단 합류해 성장 지원해



지난 3월 27일, 삼성KPMG 본사 GFC 9층 교육장에서 Audit 한은섭 부회장, Deal Advisory 구승화 부회장, CS 정대길 부회장의 파트너 정년 퇴임식이 개최됐다.

이날 파트너 정년 퇴임식에는 김교태 회장, 고문단, Equity Partner 등이 참석해 퇴임을 축하하고, 법인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며,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은섭 부회장은 1991년에 입사해 B&F1 본부장과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거친 뒤 2019년 감사부문 리더를 맡아왔다. 구승화 부회장은 1987년에 입사해 컨슈머마켓 본부장, 인사위원장,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재무자문부문을 이끌어왔다. 정대길 부회장은 1998년 입사해, RS·RE 본부장, IM 본부장, IGH 본부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컨설팅부문 대표를 맡아왔다.

한편, 한은섭·구승화·정대길 부회장은 파트너 정년 퇴임 이후, 삼성KPMG 고문단으로 합류해 삼성KPMG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Vision 2025’ 달성 위해,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삼정KPMG가 법인 조직 개편 및 파트너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Vision 2025’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Function Head와 본부장, 파트너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행됐다.

본부별 산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너지를 위해 기존 IM&Government와 IM&Automotive를 IM&Government (IM1, IM3, IGH)와 IM&Energy (IM2, IM4)로 개편했다. IM1의 새로운 본부장 및 IM&Government(IMG) Industry Leader에는 황재남 부대표가 임명됐다. 아울러 IM2의 새로운 본부장 및 IM&Energy(IME) Industry Leader에는 노상호 전무가, IM3의 새 본부장에는 신동준 전무가 선임됐다.

### 신임 본부장



IM1 본부장 및  
IM&Government(IMG)  
Industry Leader  
—  
황재남 부대표



IM2 본부장 및  
IM&Energy(IME)  
Industry Leader  
—  
노상호 전무



IM3 본부장  
—  
신동준 전무

## ‘제5회 KPMG 한·일 Partner Summit’ 일본 교토에서 개최



지난 3월 29일, ‘제5회 KPMG 한·일 Partner Summit’이 일본 교토에서 개최됐다. ‘한·일 Partner Summit’은 삼정KPMG와 KPMG 일본의 운영위원들이 모여 Function별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1년 반 주기로 1회씩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삼정KPMG 김교태 회장과 KPMG 일본의 야마다 히로유키 이사장, 치노 마사히코 Co-chairman을 비롯해 양 법인의 Function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올해는 AI 감사기법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양국 간 Deal Sourcing 강화 방안, AI 컨설팅 확대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Global Japan Desk와 Global Korea Desk에 확장 방안에 대해 상호 벤치마크하는 시간을 가졌고, QRM 측면에서는 개정 국제윤리기준(IESBA)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삼정KPMG와 KPMG 일본은 ‘Partner Summit’ 이후에도 한·일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독일 현지에서 ESG 세미나 개최

삼정KPMG ESG팀과 KPMG 독일이 함께 지난 3월 20일 KPMG 독일 Frankfurt Office에서 독일 소재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ESG 공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포스코, 셀트리온 등 한국 기업 23개 사,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EU ESG 공시기준인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비롯해 EU Taxonomy,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UDR(EU 산림벌채방지규정) 등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ESG 제도가 소개됐다. 또한, 유럽 상장사 적용 사례와 효과적인 제도 대응을 위한 본사-현지법인 협업방식에 대한 제언을 포함함으로써 한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KPMG 독일에서는 Korea Practice 담당 파트너인 Barbara Sillich, Roxana Meschke, Hanno Neuhaus가 연사로 참여했으며, 삼정KPMG에서는 김태주 전무가 ‘한국 기업의 EUDR 대응 전략’, 손민 상무가 ‘CSRD 공시 대안 및 성공적인 공시 대응을 위한 본사-현지법인 간 R&R’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 이후 21일, 22일 양일간 현지법인과 1:1 미팅을 진행했으며, 미팅에는 한화 유럽법인, LG전자, 한국타이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총 8개 사가 참여했다.

\*Contact: 손민 상무 minson@kr.kpmg.com



## 삼정KPMG·BNK부산은행, 기업 재도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3월 28일 삼정KPMG와 BNK부산은행이 ‘신규 기업발굴 및 기업 재도약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기업회생을 최종 종결한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 심사 후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정KPMG는 정상기업으로 전환 가능 업체를 발굴 및 추천하고, 해당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김이동 대표는 “삼정KPMG는 기업회생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실적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이번 양사 협력을 통해 회생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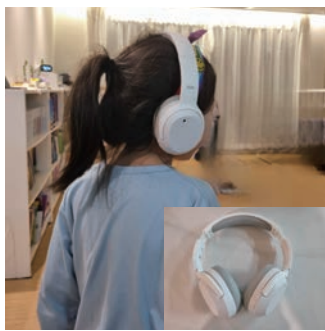
## 신입 컨설턴트 입문 교육 진행, 전문가로서 소양 다져



삼성KPMG 신입 컨설턴트 입문 교육이 4월 1일부터 3일까지 공채 및 수시 입사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 컨설턴트는 4월 1일 삼성KPMG 역삼동 본사에서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수강한 후 2일~3일까지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 리조트에서 진행된 합숙 입문 교육에 참가했다.

입문 교육 1일 차에서는 GEP 우수자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법인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보드 게임을 통해 KPMG Value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인의 비전과 전략, CS 본부 소개 강의를 진행한 후, 신입 컨설턴트들의 입사를 축하하는 환영 만찬이 진행됐다. 이어 2일 차에서는 전문가로서 기본 소양인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의와 개별 강점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성공적인 법인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마무리했다.

## 임직원 자녀에 초등학교 입학 선물 전달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 89명의 어린이들에게 법인이 준비한 입학 선물이 전달됐다. 임직원들은 다양한 선물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었으며, 선물과 함께 입학 축하 편지도 전달됐다. “자상한 편지를 아이에게 읽어주며,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입학 선물 전달을 통해 임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축하하며 가족 간 좋은 추억이 되는 계기를 선사했다.

윤현준 S.Manager(IM4)은 “올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우리 아이에게 영어 공부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헤드폰을 선물해 줬는데 예쁘다고 무척 기뻐했다”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 세계 여성의 날 'For Better Campaign' 진행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KPMG는 매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Invest in women: Accelerate progress'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KPMG 역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For Better Campaign'을 진행했으며, 임직원들은 업무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For Better'의 가치를 실천한 경험을 공유했다. 팀, 동료 등과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팁을 나눴다.

55<sup>th</sup> Anniversary

# People First Concert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올림픽공원 KSPO DOME

\*티켓부스오픈 - 오후 3시, 공연장 입장 - 오후 5시~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